

## 삶으로 체험해야 할 복음

시편 39:7-9, 마가복음 14:22-26

최정웅 목사님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 주를 맞이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원단메시지와 송구영신예배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해에 대한 방향을 붙잡았다. 그리고 새해 첫 예배를 오늘 아침에 드리면서 마가복음 14장을 묵상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부터 지시는 당일 아침까지의 일을 기록한 곳이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성찬에 대한 기록이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라서 성찬 순서가 있는 날이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면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명령하신 제도이다.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면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가 한 몸, 한 피를 받은 복음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원니스의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신과 성찬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예배를 몸으로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마음과 몸 전부를 다 쏟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보답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누리면서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 1.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유대인에게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게 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오늘 주제가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

(1) 첫째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대속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는 말 아닌가. 성찬 때 나누는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몸을 의미하고, 마시는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물과 피를 의미한다. 그냥 피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언약의 피다. 약속된 피다.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다. 히브리서 9:12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떡과 잔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살이 찢기는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진정한 감사를 주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데, 복음이 나의 살이 되고, 이 잔을 마실 때 복음이 나의 피 속에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을 삼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한다. 찬송가 149장 작家的 고백에 의하면,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다’라고 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도, 내 몸을 주께 드려서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있다.

(2) 성찬을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이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다.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갔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할 수 있다면 마셔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았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 잔을 받으실 것을 결심하

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 번 지셨다고 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지시고, 그 다음 날 실제로 지셨다는 것이다. 의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다. 사실 그 전날 많은 논쟁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다. 제자들은 그래서 잤지만,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 동네가 더우니까 땀이 나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동네가 낮에는 실제로 43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해가 넘어가면 갑자기 20도, 15도로 떨어진다. 온도차가 20도 이상 나니까 추워서 견디기가 힘들다. 습기가 몸에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중동 사람들이 옷을 둘러 입으면서,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잔다. 40도 되는 동네가 밤 되면 영상 8도가 되니까, 그 온도에도 얼어죽고 그런다. 김세진 목사님이 성지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갔는데, 우리 주님처럼 자기도 해가 넘어갈 때 땀적한 바위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 보았다고 한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소리지르고 애써도 땀이 비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그만큼 주님은 절실하게, 생을 걸고 기도하신 것이다.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3) 잡히신 후에는 공회 앞에 서셨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이다. 거꾸로 되지 않았나? 주님이 심판하셔야 하는데 자기들이 심판을 한다.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는데도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갈팡질팡하다가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는데, 그런 자들 앞에서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나 개인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당하신 것이다. 그 재판, 정죄, 수치와 모욕, 조롱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서 떠났던 내가, 우리가 당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그 자리에 서서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대속이라고 한다. 이 대속의 결과, 나의 죄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 것이다. 바꾸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침 뱃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일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한다.

### 2.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점검하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1) 마가복음 14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님은 세상을 살리시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돕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고, 도망가 버렸다. 주님이 분명히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했으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문체와 위기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행여 우리도, 좋을 때는 잘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말하지만, 우리도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똑같이 제자들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새 힘 주실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2)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았던 그들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이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기도를 부탁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이유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으니 육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다. 복

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위기 만났을 때는 다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불과 40일 후에는 사도행전 1:14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세 가지가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는 말이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잡히면 죽는다. 구급될 수 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재산에 대한 아까움도 없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종교재판에 넘어갈 텐데,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모인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간 것이 아니다.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제대로 났기 때문에 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아직 복음에 결론이 안 났구나 하고 말하지 않나. 그 말이 이 말이다. 복음에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언제 무너지질 모른다. 언제 실수하고 실패할지 모른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나시기를 축복한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선포될 때, 상대방 마음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무너짐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계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나 지기를 축복한다.

(4)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는가?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있는 딸 집에 다녀왔는데, 나와 나이가 같은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그 사모님이, '이 양반이 목사지만 너무 성격이 급해서 힘들었다'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해요, 내가 못되어서 집사람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시, "이 복음 만난 다음에, 다락방을 시작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성질이 완전히 없어져서, 지금은 너무 잘해주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셨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다.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으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고, 마음이 왔다갔다하고 갈광질광한다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해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나.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어제 찬양했지 않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복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참 사랑을 알게 되고 참 사랑을 받았다. 참 회망도 가지게 되었고 참 소망도 가지게 되었다. 내 갈 길을 알게 되고 내 할 일도 알게 되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삶으로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한다. 마가복음 14장 이후에, 제자들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다. 삶으로 복음의 내용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감람산 현장에서 집중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주시는 것이 40일 집중이었다. 그런 집중이 필요하다. 훈련은 반복이다.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하는 것을 체대할 때까지 가르친다. 이게 되어지면 숙달된 사람이 된다. 어제도 원단메시지 들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를 또 하셨는데도 우리는 시대적인 메시지가구나 하고 받았지 않나. 류목사님은 반복의 명수다. 우리 목사들의 약점이, 반복하면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분은 늘 똑같은 말을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웃음) 여기에는 37년 째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설교자들만 앉아있는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데도 은혜가 된다. 회한하다. 부산은행에 다니던 30살 된 노처녀 이야기를 나는 30년 쯤 들었다. (웃음) 그렇게 듣는데도 은혜가 된다. 훈련은 반복이다. 얼마나 그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지, '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

해 두셨구나. 구원받을 자를 보호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부르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처럼 하신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면 늘 평안하다. 말씀 들으면 또 행복하고 또 힘이 나는 것이다. 복음 체험과 복음 집중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그 체험을 한 해 동안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을 체험하자. 그리고 이렇게 체험한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고, 복음에 몰입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이 가졌던 그 행복, 그 누림을 우리도 누리 보고 증인이 되자.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후대를 살리고, 교회와 시대를 살릴 줄 믿는다.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더 정진하자.

말씀을 마치자면, 주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여기에 집중한 제자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했다. 원래는 안 그랬었지 않나.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다. 그래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해 보자.

(1) 첫째는, 복음을 구체적,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자는 것이다. 복음을 정말 체험하도록 결단하시기 바란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현장 말씀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올해는 정말 결단하고, 공예배와 현장운동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되는 분을 좀 따라다녀 보라. 전도가 되는 분, 기도가 되는 분, 응답을 받고 있는 분, 복음을 확립한 분을 따라가 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게 된다.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아,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구나.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마귀에게 잡혔던 영혼이 변하는구나.'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나면, '아,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 삶이,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2017년이 어려운 해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2) 두 번째 체험은 무엇인가 하면, 집중을 한 번 해 보자. 어제 받은 신년 메시지와 오늘 말씀까지 붙잡고, 이번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나 자신과 함께 후대에게 각인된 것과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집중을 해 보자.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정말 2017년에는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복음을 체험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다가, 정말 치유받고, 정말 누림을 누리 보고, 정말 증인 되는 증거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한다. "나는 변했어요. 내 삶에 주님이 오신 이후로 나는 변했어요." 실제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직장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어느 날 달라졌다는 것이 보여지는 체험이 있기를 바란다.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면, 이 응답을 가지고 2017년을 최고로 복되게 살게 되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는다. 참사랑 가족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삶으로 체험해야 할 복음을 정말로 가지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신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종이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고 했는데,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